

대만 수입사절단

<2019. 11. 23(토) ~ 26(화), 3박 4일>



최근 일본의 對 한국 수출규제 정책에 따라 원부자재 수입선 다변화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수입 대체국으로써 유망한 대만으로 수입사절단을 파견합니다.

지 역	대만(타이페이)
주요활동	비즈니스 포럼, 1:1 무역상담회, 산업시찰, 문화탐방, 시장조사 등
주요품목	반도체, 기구부품, 광학기기, 컴퓨터, 정밀화학원료, 문구 및 완구 등

일 자	일 정	비 고
11/23(토)	(인천 → 타이페이)	
11/24(일)	시장조사	
11/25(월)	공식행사 (비즈니스포럼 및 b2b미팅)	
11/26(화)	현지기업방문 및 귀국 (타이페이 → 인천)	
1인당 비용	항공(이코노미)/숙박(2인1실)기준 ※가격 추후 공지예정	

• 경제 특징

- 대만은 정부주도로 1960년대부터 시작된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2019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 2만6천달러, 외환보유고 4,670억달러를 보유한 아시아·태평양 지역의 경제부국으로 부상하는 등 건실한 자유시장 경제체제 구축. 특히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경영환경의 발전으로 정보, 통신, 하이테크 산업분야 경쟁력 제고에 관심

• 최근 동향

- 미·중 통상분쟁 등 외부불안요인으로 상반기 수출감소했지만 정부주도의 인프라 확충,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하반기 경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 예측

• 한국과의 관계

- 대만과 1948년 체결한 수교를 1992년 한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단교하게 되었으나, 1993년 상호 간 비공식 대표기구를 설치하여 우호적인 교류 지속, 2018년 기준 대만은 한국의 6위 교역파트너로, 한국은 대만의 5위 교역파트너.

대만은 과거 한류가 중국, 동남아 등지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발상지로, 현재 대만에서는 문화를 비롯하여 한국어, 음식 등 다양한 분야로 관심 확대



<관광명소>

• 대만의 자랑, 101 빌딩

- 높이 508m로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, 건물 엘리베이터가 5층부터 89층까지 37초 만에 도달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로 기네스북에 오름

• 국립예류해상공원

- 바위들이 수천년동안 파도의 침식과 풍화작용에 의해 희귀한 지형과 경치를 만들어 냄

• 영화 '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' 배경이 된 지우펀

- 청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작은 마을로 대만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여러 드라마의 배경이 됨

<신청 및 문의>

국제협력실 (john.k@koima.or.kr)
조중현 실장, 곽윤석 과장, 김영문 대리, 조연주 (02-6677-3665, 3669, 3664 / 02-793-2465)